

전남

서해 수온 변화... 멸치 늘고 갈치 줄어

표층수온 1.24도 상승, 저층수온은 0.4도 낮아져

꽃게 어획량 늘고 크기 작아져... 바지락 대량 폐사

서해 바닷물 온도가 변화하며 서식하는 어류 지도가 변하고 있다. 1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해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서해 표층 수온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40년 전보다 상승했고, 저층 수온은 최근 들어 빈번한 이상한파 영향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서해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68년부터 1.24도 상승, 지난해 14.64도를 기록했다. 반면 수심 50m 저층 수온은 같은 기간 0.4도 낮아져 지난해 9.77도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수온의 변화는 서해 어획고의 판도를 뒤바꿔 놓았다. 서해 표층 수온 상승으로 인해 멸치와 참돔 등 표층·연안 난류성 어종은 어획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갈치·강달리류·갯장어 등 저층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급감했다. 멸치 어획량은 1990년 2500t에서 지난해 2만7300t으로 11배 가량 늘었고, 참돔 어획량은 같은 기간 8t에서

336t으로 42배 증가했다. 반면 갈치 어획량은 1990년 2만 7000t에서 760t으로 줄었고, 강달리류도 1만5400t에서 200t으로 감소했다. 갯장어 어획량은 같은 기간 440t에서 1t으로 줄었다. 서해의 기후변화는 서해 대표 어종인 꽃게의 크기와 어획량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해 꽃게 어획량은 1990년 1만 5300t에서 2004년 2300t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2만4000t으로 늘어났다. 20년 전에 비해 어획량은 늘어났지만 꽃게의 크기는 작아졌다. 암컷의 평균 크기가 14.6cm에서 12.1cm로, 수컷의 크기는 13.6cm에서 12.3cm로 작아졌다.

서해 수산연구소는 꽃게 개체가 늘면서 딱이 경쟁이 심화돼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저층수온이 낮아지며 허물을 벗는 탈피시기가 늦어져 성장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들어 한파와 무더위 등 기후 이상 현상은 바지락 등 연안 양식 생물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 겨울에는 한파로 바지락, 전복의 대량 폐사가 자주 발생하고, 여름에는 조피볼락의 폐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서해 바지락도 양식장이 바닷가제 일종인 죽이 대량 번식해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ilee@



“신선하고 저렴한 제철 농산물 사세요”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주민들이 12일 광주유통센터 1층에 마련된 전남농산물 전용 판매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찰보리쌀과 블루베리·모스잎 송편 등 제철 농산물을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지에서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 장터인 전용 판매장을 개설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레저+스포츠’ 남도 여름바다에 다 모였다

빅 씬머페스티벌·갯벌축제 등 휴가철 맞아 해변 행사 풍성

전남지역 해변이 올 여름 피서객을 유혹하고 있다.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에 맞춰 특색을 살린 해변 기획행사들을 마련했다. 보성 울포 솔밭해변에서 14~15일 국내 최대 규모의 ‘2012 대한민국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린다. 대한민국 레저스포츠 페스티벌에서는 패러글라이딩·서바이벌·캠핑 등 3종목

의 레저스포츠 대회와 뱃배·카약·열기구·스킨스쿠버 등 18종의 레저체험 등이 진행된다. 여수 세계박람회와 열리고 있는 여수시 방죽포해변에서는 21일 ‘빅 씬머 페스티벌’이 열려 초청가수 공연이 펼쳐진다. 또 만성리 검은모래 해변에서는 21~22일 바나나 보트·제트스키 등 수상레저 기구 무료체험을

운영한다. 게르마늄 해수정질과 해변을 새빨갳게 물들이는 환상적 서해낙조 경관으로 유명한 함평 돌머리해변에서는 21일 인공 풀장에 그물망을 치고 뱃배를 풀어 맨손으로 잡는 뱃배어잡기 체험행사가 열린다. 오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안군에서는 우전해변에서 섬 갯벌 축제,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 얼굴

“현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할 것”

이 명 호 니주경찰서장



“시민결로 다가가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이명호(50) 니주경찰서장은 “경찰의 존재가치는 고객인 주민이 평안함을 느낄 때 주민들로부터 참된 경찰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취임포부를 밝혔다. 고흥 출신인 이 서장은 조선대 법학과와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90년 간부후보생으로 경찰에 투신한 뒤 전남경찰청 정보2계장, 광주경찰청 홍보담당관, 전북 부안시장, 전남경찰청 정보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정영금씨와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독서와 등산. /중부취재본부=정철현 기자@

“자전거 운전면허증 땀어요”

강진경찰, 최근 중학생 대상 이색교육·시험

강진경찰이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색적인 자전거 교육을 실시해 학생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강진경찰서(서장 이영진)는 지난 9일 작전편 소재 작전중학교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책 일환으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운전면허증 시험’을 실시했다. 이날 시험은 자전거 안전운행 요령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사례 설명 등 필기시험과 함께 직접 운동장에서 S자 주행, 굴곡 주행으로 실기시험도 치렀다. 이번 시험은 자전거 통학 비율이

도시권보다 높은 농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호등이나 교통 시설들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자전거 면허시험에서 참가 학생 30명 전원이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운전면허증 시험 시행과 교통사고 예방 홍보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oul@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도농기원 특허 획득

비닐하우스의 연료비와 노동력 절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 농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는 외부기온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비닐하우스 환기와 겨울 난방이 필요치 않는 ‘보온덮개 자동개폐기’를 최근 개발, 특허를 획득하고 농업용 시설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에 기술이전했다.

이 장치를 활용하면 시설재배 농가들이 외부기온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비닐하우스 내부를 환기시킬 수 있어 노동력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부기온이 영하 12도일 때 터널 내부 온도는 영상 6도를 유지해 겨울에도 예호박 등 일부 채소류는 난방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온실효과가 좋아 난방비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실제로 나주 시설하우스 애호박 농가에서 2년간 실증시험을 한 결과 연간 기온 값이 1000㎡당 800만 원 정도 절감됐다. /송기동기자 song@

시원한 계곡물수영장 무료 개장

나주 금성산 생태물놀이장 20일~내달 19일

나주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이 오는 20일 개장한다. 나주시는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에 시설 등을 보완하고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무료 개장에 들어간다. 지난 2009년 개장한 금성산 생태물놀이장은 나주시 경현동 금성산 자락 1만㎡ 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여㎡ 규모의 풀장과 워터·사워·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자연석을 그대로 활용하고 금성산 계곡물을 사방댐에 저장하여 물놀이장에 공급하는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했다. 이용객 연령대를 고려해 3개의 풀장을 갖추었으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지난해에 총 1만 350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물놀이장은 물놀이 시설은 무료이지만, 생태 물놀이장 관리 조례에 따라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t 이하 화물차의 경우 3000원(나주시 등록차량은 2000원)의 주차요금을 받는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n@

“교과서 속 유물 직접 감상하세요”

K-water 영·섬 통합 물관리센터 ‘열린박물관’ 개최

국립 중앙박물관과 K-water 영·섬 통합 물관리센터(센터장 이현호)는 공동으로 14~15일 이틀간 광주시 남구 승촌보 영산강 문화관 일원에서 지역의 초·중·고생을 위한 ‘열린 박물관’을 개최한다. ‘교과서 속의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100여종의 유물을 현장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나의 때(12 지인상)를 찍어보는 목판인쇄와 점토를 이용한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k-water는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한지 목판과 클레이 아트를 이용한 탈 모양의 목걸이를 기념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영·섬 통합물관리센터는 “영산강을 찾는 광주·전남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모처럼 희귀한 유물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전남 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Includes details about land parcels (sajon, inha, budongsan) and building areas. Contact info: 010-2498-0420.

2012-2 여가신학원 (여전도사과정) 모집. Includes information about the 2012 Youth Care Education Center course, dates, fees, and contact info.